

군농만판 > 일월조상본풀이 > 오설롱 따님아기 본풀이

이 조상은 맛을마다 동네, 사 [요령] 조순덜 사는 집안에, 아는 제 조상입네다. 일월이 놀저 제 석이 놀저 허난, 이 집안 아무가이 조상은 영 허켄 오칩이, 조상이 놀저 험네다~.<sup>1)</sup>

[덕담]

오설롱~	이로구나 [요령]
물도 벅 쉼	쉐도 벅 쉼
종하님 거느리어	거력허게 사난

조식 없어 무유유화가 당허난, 동계남은 상저절에 간 원수룩을 디리난, 아기씨가 탄싱헤엿구나~. 아기씨가 탄싱허난 이 아기가 구덕에서<sup>2)</sup> 훈 솔 두 솔 자라나 가난, 흐를날은 상탄 물을 죽으난, ‘이거 어떻헌 일이고 피라곡절헌 일이여.’ “수벨감아 수장남아 먼 정에 나고 보라. 어떻허난 상탄 물만 죽엄신고?” 영 허난

[덕담]

이 밤 저 밤	스서삼경
깊은 야밤이	당허시난
아기씨가	구덕에 녹진 아기씨가
나오라	은데양에

물을 떠다 놓고 접시에 소금을 놓안 바령बाट<sup>3)</sup> 들어간, 놀간 놀에를<sup>4)</sup> 양에 석석을 빼앗안 물에 시천,<sup>5)</sup> 소금에 적전 먹어두언 먹어난 책 아년, 구들러레 들어오란, 구덕에 누워봄데다~. [요령] 그거를 들으난, 상전님 아피 알아나민 청뎃섭을 목을 골려 죽일 일이난, 상전님이 불려가난, “상전님이 오닐랑 여사봄서.” “걸랑 기영 허저.” 이 밤 저 밤

[덕담]

스서삼경 지픈 야밤이	당허시난 [요령]
-------------	-----------

아기씨가 구덕에 녹진 아기씨가 난디엇이 나오란, 은데양에 물을 떠 놓고 소금에 접시 놓안, 바령बाट 들어간, 상탄 물을, 언설<sup>6)</sup> 단설<sup>7)</sup> 녹미녹설(鹿尾鹿舌) 설레산적을<sup>8)</sup>, 빼앗안 물로 시천

1) 오칩이, 조상이 놀저 험네다 : 오씨 집안의 오설롱 아기씨 조상에 대하여 말하려고 함.

2) 구덕 : 바구니.

3) 바령बाट : 보리를 벤 다음 농사를 한 철 쉬고 거름 대신으로 밤마다 마소뎃을 가두어 놀리는 밭. 또는 조 파종을 마친 다음 여름철에 품삯을 받고 목장으로 올려놓아 먹이는 마소뎃을 밤에 가두어 놀리는 밭.

4) 놀간 놀에를 : 날간 날창자들.

5) 시천 : 씻어서.

먹읍데다~. 그걸 먹으난, 집으로 들어오란, 이 아기가 구덕에, 먹어난 책 아년 녹고 듯날 아침  
인, ‘이 아기 놓앗당은 집안에 아니 뵈 일이라 어떻허민 좋으리야.’ 손도 끊언 데껴불고 발도 끊  
언 데껴붙데다. 이거 죽으라 헤연 데정마을에<sup>9)</sup> 귀양 일법을 마련허난, 서촌(西村)~ 이거 호책(好  
妾)으로 들언, 자식이라 보아지카부덴 영 현 게, 살단 살단 자식도 못 보안, 인간에 살단 죽으난,  
친정으로 뵈돌아옵데다~. 친정으로 뵈돌아오난, 난디엇이 따시 상탄 물을 죽어가난, 급급허고  
답답허연

[덕담]

문복단점을

지으시난

“아기씨? 뜬 조상이여~.” “어떻허민 좁네까?” “산신일월(山神日月)로 헤영, 이거 올레코스<sup>10)</sup>  
헐 떤나 큰곳 죽은곳 헐 떤나 언설 단설

[덕담]

언설 단설은

녹미녹설

설레산적

헤여다가

저 올레로 산신군줄을 잘 네영 케우리고, 이거~ 집안에 쉼막에<sup>11)</sup> 잇이민 네 밧디에<sup>12)</sup> 네 기  
둥에, 지 쌍 문곡, 이 쉼막에 산신군줄을, 잘 위협을 헤여사, 부제팔명 허고 잘 뵈덴.” 험데다 영  
허난, 오설룡 뚝님아기 오씨 아기씨가, 친정(親庭)에 뵈돌아오란, 이어 간장을 풀리고

[덕담]

언설 단설

녹미녹설

설레산적

받아오던 산신일월

일천 간장

풀려줍서 [신칼점]

허남춘 외, 『고순안심방본풀이』,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, 2013, pp.386-389.

6) 언설 : 식은 피(血).

7) 단설 : 따뜻한 피(血).

8) 설레산적 : 소고기 적(炙).

9) 데정마을 : 대정(大靜)마을에, 대정은 조선시대 제주 삼읍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.

10) 올레코스 : 집안에서 신년제(新年祭)로 벌이는 무속의례.

11) 쉼막 : 외양간.

12) 네 밧디에 : 네 군데에.